

고금리에 내수 절벽... 車업계, 다양한 할부·할인 마케팅

현대차, M카드 2~3개월 무이자
기아차, 배출가스 4등급 '보조금'
쉐보레 콜로라도 1.9% 초저리 할부
르노 주요차종 3.3% 저금리 할부
쌍용,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고금리에 계약을 취소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할인 혜택과 금리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신차 할부 금리가 연 10%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완성차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특히 르노코리아와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이른바 '르쌍쉐' 3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할인 프로모션에 주력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3월 한 달간 현대카드 M 계열 카드로 M할부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2~3개월까지 무이자로 구매할 수 있다. 20·30·40개월 할부를 진행할 경우 6.2%, 50·60개월은 6.4%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자 수수료는 36개월 기간 동안 상환이자 없이 기간 내 미상환



제네시스 G80

시 별도로 추가 이자없이 남은 원금만 납부하면된다. 중도 상환시에도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아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배출가스 4등급 차량 신규 포함)에 따라 친환경 이벤트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보조금의 상한액(폐차 시 기본지원금 및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합산 기준) 또한 기준가액이 더 높은 4등급 차량의 상태를 감안해 5등급 대비 500만원 더 많은 최대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기아는 본인이 소유 중

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을 인증하는 고객에게 커피 교환권과 신차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같은기간 콜로라도 대상 1.9% 초저리 할부를 제공하고, 트래버스는 400만원을 할인한다. 쉐보레 콜로라도 1.9% 초저리 할부 상품은 선수율 없이 최대 36개월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일시불로 콜로라도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250만원을 지원한다. 트레일블레이저 구매자가 콤보 프로그램(할인과 할부를 결합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면 2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 50%를 지원한다.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을 활용



한국지엠 쉐보레 2022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하면 50만원 할인한다.

트래버스는 콤보 프로그램 이용시 400만원을 할인한다. 일시불 구매자엔 취득세 300만원을 준다. 트래버스 할부는 3.9% 이자에 최대 60개월 상품(선수율 30%)이 준비됐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비 목적으로 100만원 할인한다. 타호는 3.9% 이자, 최대 60개월 할부(선수율 30%)를 마련했다. 일시불 구매자는 취득세 50%를 지원한다.

르노코리아는 QM6·SM6·XM3 등 주요 차종에 대해 최대 36개월 3.3%의 저금리 할부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차종별 조건에 따라 최대 170만원의 특

별 할인도 제공한다.

2023년 올해의 하이브리드 SUV에 선정된 XM3E-Tech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3월에 QM6·SM6 등 르노코리아의 주요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36개월 3.3% 저금리 할부 상품(할부원금 1200만원 이하)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4개월 3.3% 저금리 할부 상품(할부원금 1500만원 이하)도 선택 가능하며 그 밖에 할부원금 제한 없이 36개월 5.9%, 48개월과 60개월 6.9% 할부 상품도 이용 가능하다.

쌍용차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새봄 앤 새차 페스티벌'을 시행한다. 노후차 지원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840만원 상당의 혜택(일부모델)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정부의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에 발맞춰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객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토레스 및 코란도, 티볼리 등 가솔린 모델을 구입하면 정부 보조금(최대 800만원)에 더해 차종에 따라 10~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렉스턴 및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정부의 폐차 지원금(최대 4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순항... 英 '승인' 기아, 전동화 대형 SUV EV9 출시 초읽기

영국 포함 11개국 심사 종료
美·유럽연합·日 승인만 남아

대한항공이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한 최종 관문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일 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영국 경쟁당국은 지난해 11월28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원칙적

으로 수용하고 자진 시정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심사기한을 1월26일에서 3월26일로 연장했으나 예정보다 빠르게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영국 경쟁당국의 결정은 남은 미국, EU, 일본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2단계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사전협의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시간을 좀 더 두고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머지 절

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호주와 중국 등 경쟁당국은 이번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영국을 포함해 11개국은 결함을 승인하거나 심사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티저 이미지·영상 선보여
첨단기술의 미래 분위기 물씬

기아의 첫 번째 전용 전동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아는 '더 기아 EV9'(이하 EV9)의 공개에 앞서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2일 선보였다. EV9은 기아가 2021년 출시한 EV6에 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두 번째 전용 전동화 모델로, 전동화와 지속가능한 브랜드로의 변화를 이끌 플래그십 SUV다.

EV9의 차명은 기아의 전용 전기차 명명 체계에 따라 전기차를 의미하는 'EV'와 전용 전기차 라인업에서 플래그십의 위치와 역할을 상징하는 숫자 '9'을 더해 정해졌다.

이날 기아가 공개한 이미지와 영상은 차량의 실루엣과 함께 전·후면부에 적



기아 더 기아 EV9.

용한 다양한 조명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실루엣을 통해 드러난 EV9은 긴 휠베이스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케 하며, 전폭과 전고 등 차체 비율이 정통 SUV 형태를 띠고 있어 전동화 SUV로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전달할 것을 예고한다.

전면부는 내연기관의 그릴이 있던 자리에 위치한 깔끔한 면 위로 여러 개의 조명이 빛을 밝히며 헤드램프와 조화를 이뤄 첨단 기술이 고도화된 가까운 미래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10년 만에 기술직 채용 나선다

올해 400명, 내년 300명 채용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통해 진행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기술직 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2일 기술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으로 규정하고 차량 전동화 및 제조 기술 혁신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성별은 무관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내년까지 생산직 7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400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3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현대차 양재사옥.

서류 접수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3월 말이다. 면접 전형은 총 2개 차수로 진행되며 1차수는 4월부터 6월 초까지, 2차수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각각 실시된다.

각 차수별 1차 면접, 인적성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

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입사 교육 등을 거쳐 9월에서 10월 중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지난 2021년 기준 9600만원이다. 만 60세 정년 보장과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10년만에 실시하는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부터 대졸자 채용도 진행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부터 매달 홀수월 1일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두번째 상시 채용으로 모집 부문은 ▲연구개발(R&D) ▲디자인 ▲제조·생산 ▲전략지원 등이다. 오는 14일까지 현대차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접수를 받는다. /양성운 기자

LS일렉트릭 설비증설로 세계 6위 시험소 우뚝

LS일렉트릭이 전력 시험 능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LS일렉트릭은 최근 단락발전기 1기를 증설했다고 2일 밝혔다.

단락발전기는 차단기, 변압기 등 전력기기의 성능을 확인, 평가하기 위해 실제 계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전류를 모의하여 시험하는 설비다.

이를 통해 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PT&T)는 세계 6위권 시험소로 거듭났다. 2000MVA급 단락발전기 1대를 보유해 10위권에서 추가 증설로 설비용량을 4000MVA로 2배 끌어올렸

다. 국내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KERI)에 이어 2위다.

LS일렉트릭은 사업밀착형 제품에 대한 시험 수요가 급증하며 발생한 시험 정체를 해소하고, 대외 잠재적 고객들의 시험 의뢰까지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증설을 추진,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대 발전기를 독립·병렬 운전으로 운용, 평균 2개월에 달하는 시험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험 효율 또한 85%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